

‘신빈곤’에 관한 문학적 서사*

- 김애란의 소설집 『침이 고인다』

정 윤 희

단독 / 동덕여자대학교

I. 신빈곤과 청년실업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가 거친 압축 성장 과정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그중에서도 성장의 그늘에 가려있던 도시빈곤층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1990년대 후반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확고해지고 있다. 그 결과 도시 빈곤의 양상도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현 단계의 빈곤현상은 경제적 차원의 결핍만을 의미하던 기존의 빈곤 개념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빈곤 개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여러 연구가들에 따르면 신빈곤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후로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 결과이며, 고용 및 소비 활동이 불안정화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¹⁾ 구빈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데 따른 물질적 결핍과 박탈 상황에 근거하는 데 반해 신빈곤은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확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흔히 신빈곤 현상은 안정 성장 단계에 접어든 서구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고도성

* 이 논문은 2012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1) 조명래,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과 신빈곤」,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한국 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2006, 72쪽 참조.

장기의 개도국서 발견되는 경제적 차원의 절대빈곤과는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이밖에 신빈곤은 빈부격차의 심화로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빈곤에 가까우며, 경제적 박탈, 사회적 배제, 문화적 소외 등이 복합된 사회적 불평등의 함수라 할 수 있다.²⁾ 문제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일시적 질병이나 실직이 곧바로 절대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³⁾ 또한 유연적인 고용체제 하에 불완전 고용층이 늘어나면서 빈곤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산층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지고 과거에 비해 빈곤층이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 격리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⁴⁾

빈곤이 분배적, 정책적 개념이라면, 90년대 후반 유럽 사회과학 연구의 중심 주제로 부상한 ‘사회적 배제’는 관계적, 동태적 개념이다.⁵⁾ 신빈곤은 이 두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배제’란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에서 배제된 상태 혹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⁶⁾ 말하자면 사회적 배제는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사회적 불평등의 특별한 형태이다. 개인의 활동적인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통합과 달리 사회적 배제는 사회로부터의 분리 내지 탈각되는 임의의 과정을 의미한다.⁷⁾ 그런 점에서 더욱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거시경제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고용위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
- 2) 장세훈, 「한국 사회에 ‘신빈곤’은 존재하는가? 도시빈곤의 지속과 변모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한국 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2006, 15-17쪽 참조.
 - 3) 박보영, 「신빈곤을 통해 본 양극화시대의 빈곤문제」, 『노동연구』 제19집, 2010.4, 10쪽 이하 참조.
 - 4) 장세훈, 앞의 책, 20쪽 이하 참조.
 - 5) 이정우,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정치경제학」,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009.9, 25쪽 참조.
 - 6)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은 1974년 프랑스 장관이었던 리샤르 르누아르(Richard Lenoir)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그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다. 이 개념의 등장 배경 및 특성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노병일, 『빈곤론』, 양서원, 2013, 95-142쪽.
 - 7) Ueli Mäder: Armut und soziale Ausgrenzung: zur Dynamik von Integration und Ausschluss, in: Bernard Wandeler, Peter Stadel (Hg.): *Armut und soziale Ausgrenzung*, Werkstattheft, Hochschule Luzern - Soziale Arbeit, 2010, S. 10.

신빈곤층을 형성하는 주된 부류는 다름 아닌 청년실업자들이다. 이들은 다시 취업 준비생, 고시생,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나뉘며 이들의 실업 형태와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청년 실업 100만 시대’라는 말이 몇 년 째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88만원 세대’에서 ‘인턴 세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청년 구직자들의 앞길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88만원 세대’ 이후에도 ‘장미족’, ‘이퇴백’, ‘삼초땡’, ‘삼포 세대’ 등과 같은 신조어들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다.⁸⁾ 물론 과거에도 청년실업과 청년빈곤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청년실업사태가 장기화된 적은 없었다. 다시 말해 청년실업자들의 비경제활동 기간도 짧았고,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날엔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업자 상태를 벗어날 수 없거나 설령 취업을 한다 해도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세된 채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⁹⁾

김애란의 소설집 『침이 고인다』(2007)¹⁰⁾는 위와 같은 동시대적 문제를 매우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첫 단편집 『달려라, 아비』(2005)에서 김애란은 현대사회의 다기한 문제들을 새로운 세대 감각과 독자적인 방식으로 탐색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노크하지 않는 집」, 「나는 편의점에 간다」, 「종이 물고기」 등은 도시적 일상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주체 및 인간관계의 문제를 치밀하게 파헤치고 있다.¹¹⁾ 청년

8) ‘장미족’은 장기 미취업 졸업생들, ‘이퇴백’은 20대에 퇴직한 백수들, ‘삼초땡’은 삼십대 초반이면 명예퇴직을 생각해야할 만큼 명예퇴직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포 세대’는 취업난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다.

9) 윤진호, 「신자유주의 시대의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황해문화』 제67집, 새얼문화재단, 2010.6, 249쪽 참조.

10) 김애란, 『침이 고인다』, 문학과지성사, 2007. 이하 원문을 인용할 경우 괄호 속에 「도도한 생활」은 ‘도도’, 「침이 고인다」는 ‘침’, 「자오선을 지나갈 때」는 ‘자오선’, 「성탄특선」은 ‘성탄’, 「기도」는 ‘기도’로 표기하고 쪽수를 병기한다.

11) 김애란의 소설을 ‘자본주의 일상에 대한 비판적 사유’로 읽어낸 이평전을 비롯하여 ‘공간과 소통의 문제’로 접근한 신흥철, 김애란 소설이 그리는 서울의 도시 공간을 ‘인정의 동선, 자기보존의 도시’로 읽어낸 양윤의의 선행연구는 김애란 문학의 여러 용기들과 미세한 결들을 포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평전, 「현대소설에 나타난 ‘일상’ 재현의 의미와 ‘주체’ 서사 연구—정이현,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375-397쪽; 양윤의, 「서울, 정념의 지도—200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45-78쪽; 신흥

층의 불안과 고립의 양상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침이 고인다』는 위 소설들과 동일한 궤적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20대 청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우리 사회의 ‘신빈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에서 『침이 고인다』는 분명 전작과는 다른 지평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소설집 『비행운』(2012) 역시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비행운(飛行雲)’과 같이 어딘가에 안착하지 못한 정처 없는 사람들 혹은 타고난 행운을 얻지 못한 ‘비행운(非幸運)’의 사람들과 그들의 그늘진 삶을 그리고 있다. 빈곤과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면에서 『침이 고인다』와 연장선상에 놓이지만, 전작들에 비해 연령층이 좀더 다양해지고 공간적 범위도 넓어졌다.¹²⁾

이 논문에서는 『침이 고인다』를 ‘신빈곤’에 관한 문학적 서사로 논구해보려고 한다. 『침이 고인다』에 수록된 소설들 가운데 신빈곤의 문제를 극명하게 다룬 다섯 편의 소설, 「도도한 생활」, 「침이 고인다」, 「자오선을 지나갈 때」, 「성탄 특선」, 「기도」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신빈곤의 주요특징으로 거론되는 근로빈곤과 주거빈곤, 희망빈곤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이를 통해 김애란의 소설들이 그리고 있는 빈곤 및 소외된 노동,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신빈곤 양상과 어떻게 접맥되고 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비판과 변화의 추동력을 이끌어내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II. 신빈곤시대의 사회적 배제 양상

1. “내 등은 네안데르탈인처럼 점점 굽어갔다.” — 근로빈곤

노동은 자아실현의 수단이자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다. 더욱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 하나로 노동을 들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동물의 노동이 본능적인 데 반해 인간의 노동은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이라고 갈파하였다. 이는 인간만이 노동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며, 노동을 통해 가족과 사회 내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간에

철,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693-708쪽.

12) 동아일보 2012.7.18. <http://news.donga.com/3/all/20120718/47843613/1>

게 실업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며,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출발점에서 있는 청년층에게 실업은 자신의 전 생애에 걸친 존재의의가 부정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들은 자신을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 즉 '잉여적 존재'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확대는 결국 사회 전체의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 및 단절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¹³⁾ 최근 들어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소설집 『침이 고인다』에서 주목이 집중되는 것 역시 근로빈곤이다. 신빈곤의 가장 주요한 특징인 근로빈곤이 등장인물들을 통해 조명된다. 특히 등장인물들이 모두 청년층이며, 그것도 불완전 취업과 저임금으로 빈곤탈출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층이라는 점이 이채롭다. 그들은 대학등록금 마련이나 대학 편입을 위해 임시직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도한 생활」), 비정규직 학원 강사, 장당 천원을 받고 침삭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침이 고인다」),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구직자(「자오선을 지나 갈 때」), 취업은 했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젊은이들(「성탄특선」)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생(「기도」) 등이다. 이러한 인물설정은 청년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조명하기 위한 장치이다. 양극화는 우리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이와 더불어 또 다른 화두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화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화의 진전이 규제완화나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을 촉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비정규직을 등장인물로 삼은 것은 비정규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양극화가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¹⁴⁾ 생존에 허덕이는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힘겨움을 감내한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도 이 사회에 진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김애란의 소설들은 강변한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공무원시험 준비나 취업준비를 하더라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취업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의 성격을 갖는 노동시장 배제집단이라 할 수 있다.

13) 윤진호, 앞의 책, 250쪽 참조.

14) 박태주·오건호, 「비정규직, 현대관 신분제인가」, 『창작과비평』 통권 140호, 2008, 194쪽 참조..

이는 고학력을 기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해준다. 더욱이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층은 빈곤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고, 사회적 관계 및 자아형성에도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3장에서 살펴볼 희망의 빈곤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등장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17여 년 전 『노동의 종말』(1996)에서 리프킨은 첨단기술의 발달, 정보화 사회, 경영 혁신 등이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개정판 서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새로운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다가올 반세기에 걸쳐 세계 경제를 대량 노동에서 소규모의 전문 인력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¹⁵⁾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겠지만 대부분 임금이 낮은 임시직에 불과하고, 이는 사회의 양극화를 촉진하게 되어 결국 결함 사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도한 생활』의 주인공이 서울권 4년제 대학의 컴퓨터학과에 진학한 것도 오로지 졸업하면 취직이 잘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에서였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 채 대학진학의 목적과 전공 선택을 오로지 취업과 결부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 단면이다(도도, 21). 결국 주인공 ‘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쇄소와 연결돼 학원교재나 시험지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만 했다. A4 한 장당 1,500원을 받고 시작한 일은 하루 종일 매달려 일해도 얼마 안 되는 돈을 손에 쥌 뿐이다. 그래도 그녀가 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이다. 인쇄소측은 “정해진 시간에 결코 소화할 수 없는 양의 일”을 주면서 그나마도 오탈자가 날 경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100년 전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진보적인 기계 앞에서, 내 등은 네안데르탈인처럼 점점 굽어갔다.”(도도, 30)는 주인공의 토로는 다분히 갑의 무리한 요구와 그에 따른 불공정한 노동의 대가라는 척박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그녀의 언니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의 한 전문대학에서 ‘치기공’을 배우는 언니는 편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4년제 영문과에 들어가 어학연수도 가고 취직도 하고 싶은 것이 언니의 소망이자 꿈이다. ‘재수’나 ‘전학’이라는 말과 달리

15)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 민음사, 2005, 22쪽 참조.

‘편입’이란 말은 묘한 빈곤감을 준다고 여기는 언니의 생각(도도, 31)은 재수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의 소산이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는 반지하에서 밤마다 타자소리와 영어단어 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이들의 고투이다. ‘세상에 영어 하나만 돼도 주어지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는 언니의 훈수에서 이들이 조기 영어 교육이나 해외 어학연수 등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철저하게 경제력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사회풍토를 말해준다. 그렇기에 가진 것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죽어라하고 일하는 것밖에 없다. 언니는 대학편입을 위해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계산 보는 일을 하며 틈틈이 공부한다. 나의 힘겨움 못지않게 언니도 “새벽마다 어깨에 쌀 포대만 한 줄음을 이고 학원에 갔고, 주말이면 다리 사이에 그 포대를 끼고 한없이 깊은 잠을 잤다.”(도도, 32)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피로’는 학업과 노동에 지쳐 생기를 잃어가는 청년층의 삶을 대변한다. 「침이 고인다」에서는 그러한 피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침이 고인다」의 주인공 ‘그녀’가 아침마다 잠결에 절망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은 “‘피곤하다’는 늘 한 가지 종류의 것 뿐”(침, 46)이다. 반복해서 굶은 기움임체로 강조되어 있는 ‘**피곤하다**’(침, 46, 78)와 ‘**정말 피곤하다**’(침, 46)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소진되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그것의 병리적인 증후는 ‘육신거리는 몸’(46)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역시 굶은 기움임체로 강조된 ‘**춡다**, ‘**우울하다**, ‘**좁 잘까?**’, ‘**목마르다**’ 등과 같이 생리적 현상으로 표출된다. 이는 삭막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즉 이들은 험난한 현실에 추위를 느끼고 미래가 암울하기에 우울하며 삶이 무의미하기에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뭔가를 목말라 하는 것 아닐까.

여기서 『침이 고인다』의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피로를 재독 철학자 한병철이 『피로사회』에서 지적한 성과주체들의 양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한병철에 따르면 21세기의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 ‘-해서는 안 된다’와 ‘-해야 한다’는 부정성에 기반 한 규율사회와 달리 오늘날의 사회는 ‘-할 수 있다’는 긍정성에 기반 한 성과주체들을 양산한다. 21세기의 신경성 질환들이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소진, 피로, 질식 등 병리적 상태인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¹⁶⁾

16)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23-29쪽 참조.

하지만 등장인물들이 성과주체의 양상을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을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고 성과를 향한 압박에 ‘탈진한’ 영혼들로 보기는 어렵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성과주체가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착취하는 외적인 지배기구에서 자유로운 데 반해,¹⁷⁾ 이들은 이러한 외적인 지배구구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후기 근대적 노동사회의 새로운 계율이 된 성과주의의 명령의 희생양일 뿐이다. 이들이 보이는 병리적 징후가 한편으로는 성과사회, 활동사회가 갖는 생동성 이면에서 야기하는 극단적 피로와 탈진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실에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체적이지 못한 삶의 또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성과주체와는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내가 모르는 얼굴이 나로 살고 있다는 생각”(자오선, 119)을 갖을 만큼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침이 고인다」의 주인공이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결심이 아닌 ‘주저’라고 여기는 까닭도 주저의 순간만큼은 자신에게도 삶에 대한 선택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침, 47).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에 불과하다. 학원 강사인 그녀가 늘 강박적으로 하루 일과를 시간에 쫓기며 ‘몇 시지?’(침, 47)로 시작하고 ‘오늘, 학원 가지 말까?’ 하는 고민과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침이 고인다』의 등장인물들이 긍정성의 과잉으로 주체적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을 강제하는 성과주체와는 다름을 방증한다. 이는 지하철 속의 사람들을 색깔별로 다른 노선의 띠를 따라 우르르 이동하는, ‘마치 밧줄을 잡고 이동하는 맹인들’(기도, 187)에 비유한 것에서 보듯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획일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냉소이다.

「자오선을 지나 갈 때」에서 ‘나’ 또한 ‘먹물들의 막장’으로 폄하되는 학원을 전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입사 시험에 서른 번째 낙방을 하면서 주인공은 “정말 나는 괴물이 아닐까?”(자오선, 293)라고 자문한다. ‘괴물’은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한 우울한 자책이지만, 역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자가 스스로를 낙오자 혹은 잉여적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이 시대에 대한 적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2005년 스물여섯의 나이인 ‘나’는 강사 경력 3년차 이력서를 들고 학원 강사 자리를 알아본다. 직장을 구하느라 고단해진 몸을 전철에 싣고 귀가하는 길에

17) 위의 책, 28쪽 참조.

‘나’는 우연히 노량진을 지나며 그곳에서 재수생활을 했던 1999년의 시절을 회상한다. 그러면서 IMF가 미친 여파가 얼핏 이야기 된다. ‘나’는 IMF로 갑자기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아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서 노량진에 입성한다. 그녀에게는 그곳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유일한 ‘약속의 땅’처럼 여겨졌다. 비단 그녀만이 아니다. 그곳에 젊음을 유예시키고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임용고시 재수생, 5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도 마찬가지였다. 성적은 항상 4.0이 넘었고 토익 점수도 900점 이상이었으며, 성격도 원만하고 나름대로 창의적인 인간이라 생각해온 주인공 ‘나’는 연거푸 서류심사에서 낙방하자 떨어지는 이유가 자격증이 없다는 것, 자신의 인상, 전공 때문일 것이라 여긴다. 국문과만이 아니라 영문과, 철학과, 법학과도 마찬가지라는 친구의 말은 현재의 젊은이들이 내몰린 ‘취업대란’의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자오선, 120).

「기도」의 주인공 역시 비정규직인 과외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간다. 그녀는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에 쫓기듯 선택한 화장품 회사를 1년 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 두었다. 자식의 취업을 더없는 ‘자부’로 여겼던 그녀의 엄마는 회사에서 준 화장품 샘플마저 마치 “자식의 사회적 지위 혹은 권력처럼”(기도, 191) 느낀다. 이는 정규직에 취업하기가 그만큼 힘든 현실에서 비롯한다. ‘나’는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 세 장이라는 말에 솔깃하여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대졸자 취업 경로 조사’라는 설문에 응한다. 이는 그녀가 대학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듯 보이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녀가 “실직자가 갖는 하루분의 자책감 정도와는 교환될 수 있지 않을까”(기도, 187)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도 결국 문화상품권이라는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와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설문이 행해지는 장소가 교회라는 점에서 이 장면은 자본이 종교의 경건함만큼이나 몰신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도 있다.

최근 들어 급증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의 불안정과 낮은 임금으로 좀처럼 형편이 나아가지 어렵고 쉽게 빈곤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다.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간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들이 고단한 현실을 감내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 아닌 ‘다음’을 향해, 다음을 위해 달려가는 저 매혹적인 이야기”(침, 79)들처럼 조금은 나를 미래를 위해서다.

우리는 몇 년간 ‘올해는 잘될 거다’란 얘기를 처음 해보는 소리인 양 한다. 내가 공사에 떨어졌을 때도, 언니가 공무원 시험에 낙방했을 때도 그랬다. 우리는 낙관의 근거를 속속들이 찾아냈다. 올해는 선거철이니까 ‘티오’를 많이 내지 않을까, 올해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줄어들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올해는 학원에 다녔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올해는 내년이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돼야 하는 게 아닐까. (기도, 192)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의 간절한 바람과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러한 염원은 마지막 장면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응축된다. 노동부 조사원의 설문조사 내용이 재학시절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 각 직업의 주간 근무 횟수, 시급, 사대 보험 적용 여부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녀가 “번역 아르바이트, 커피숍 서빙, 화장품 회사 홍보직, 잡지 교열, 논술 첨삭, 영어 과외”(기도, 208) 등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제목이 시사하듯 그녀가 노동부 조사원과 교회 긴 의자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마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기도, 210) 보인다고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사라져 버린,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사회에서 보다는 삶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그들은 마음 깊이 염원하는 것이리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소설 속 주인공들의 모습은 부유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우리시대 젊은이들의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노동부 조사원을 아버지 또래의 남자로 설정한 것에서 이러한 현실이 비단 청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사회적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50대 특유의 딱딱함을 풍기고 있지만, 웬지 평생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살아왔을 것 같은 인상”(기도, 206)을 주는 그 남자에게 ‘나’는 뭔가 측은한 마음을 느낀다. 그것은 “정식직원은 아닌 듯”한 그의 모습에서 웬지 자기 자신처럼 “이 아저씨도 분명 ‘알바생’이겠지”(기도, 209)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따라서 이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각자 바람은 다르더라도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한 염원은 소설집 『침이 고인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해당된다. 「기도」에서 꽃다운 20대를 오로지 독서실과 도서관 칸막이 안에서 보낸 주인공의 언니는 신림동 고시촌이 마지막 공부하는 곳이길 바랄 것이다. 언니에게는 그 기도가 언젠가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의 힘든 현실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성탄특선」의 남매에게는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일 것이다. 또한 「자오선을 지나갈 때」의 주인공은 안정된 직장을 구해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것일 거다. 하지만 이 소설들이 보여주는 이들이 처한 노동 기회의 박탈과 노동의 의미 상실은 그마저도 어려운 현실을 되비친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창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는 무관한 무위의 강요이자 노동으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피게 될 주거빈곤과도 직결되며 궁극적으로는 희망의 상실로 이어진다.

2. “모든 게 ‘방’ 때문이다” — 주거빈곤

김애란의 소설집 『침이 고인다』는 서울 변두리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궁핍하고 누추한 일상을 전경화한다. 그중에서도 이광호가 지적한 것처럼 ‘방’은 신빈곤 시대의 20대들이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엄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입사식(入社式)을 준비하는 공간이다.¹⁸⁾ 비단 『침이 고인다』만이 아니라 『달려라, 아비』에서도 한 시대를 끌어안는 주요 메타포로서 공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는 하다.¹⁹⁾ 그러나 『침이 고인다』에서는 주거공간으로서의 ‘방’이 빈곤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와 한층 뚜렷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도도한 생활」에서 보듯이 반지하 셋방은 도시 내의 공간적

18) 이광호, 「나만의 방, 그 우주 지리학」, 김애란의 소설집 『침이 고인다』 해설, 문학과지성사, 2007, 284쪽 이하 참조. 이광호는 방의 의미가 단순히 젊은 세대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확인시켜주는 공간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방의 사회학에서 방의 지형학으로, 혹은 방의 기호학에서 방의 우주 지리학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신빈곤 시대의 축소된 개인을 ‘우주적 자기’로 재탄생시키는 서사적 모험이 곧 방의 우주 지리학이라는 정치한 해석을 내놓았다.

19) 이에 관해서는 신형철, 앞의 책, 693-701쪽 참조. 신형철은 당대 한국사회의 가장 인상적인 풍속도 중 하나를 머금고 있는 곳으로 김애란 소설 속 원룸(「노크하지 않는 집」)과 편의점(「나는 편의점에 간다」)을 들고 있으며, 이밖에 반지하 셋방과 지하철 등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소통의 문제를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격리와 사회적 배제의 주된 대상이다. 주인공이 언니와 공유하는 서울의 지하 단칸 방은 두 사람이 겨우 몸을 널 만한 자리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공간이다. 그마저도 폭우로 인해 방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고 새까만 물이 방에 차오르면서 이들의 마지막 자존심의 상징인 피아노가 젖어가는 비극적인 상황은 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더욱 극적으로 장면화한다. 주인공이 ‘도—’를 한 번 누른 것에 주인은 피아노 친 것 아니냐며 문을 두드리고, 곰팡이 얘기를 꺼내자 “지하는 원래 그렇다”고 딱 잘라 말한다. 이 대목은 사회적 약자로서 이들이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을 말해준다. “‘원래 그렇다’는 말 같은 거, 웬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도도, 35)는 주인공의 말에는 가진 것 없는 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녹아들어 있다.

「자오선을 지나갈 때」에서는 그것이 노량진 학원가와 그곳에 기숙하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 재수시절 주인공은 월 11만 원짜리 여성 전용 독서실에서 생활했다. 고작 책상 한 칸이 그녀 몫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이름이 아닌 ‘K-59’와 같이 번호로 호명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공간이 비인간적인 공간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네 명이 책상 위에 의자를 올린 뒤 연필처럼 자야하는 4인실 공간에서는 뻐뻐 진동음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주위에 창문 하나 조차 없는 감옥과도 같은 그곳을 “마치 풀벌레가 소리 죽여 울듯, 우리 모두가 한 마리 풀벌레인 양”(자오선, 128 이하) 모두들 ‘열심히 하자’라는 각오 하나로 간신히 버텨내고 있을 뿐이다.

「기도」의 주인공 ‘나’는 막내와 작은 원룸에 살고 있다. 그녀가 언니와 같이 지내자는 말을 못하는 이유는 방이 너무 좁아서다. 언니가 공부하는 신림동의 고시촌에도 빈부의 격차는 존재한다. 도로를 기준으로 주로 학원과 허름한 고시원이 있는 9동과 고급 원룸텔이 많은 2동으로 나뉜다. 주인공의 언니가 계약한 여학생 전용 고시원은 월 14만원에 공동욕실과 PC실이 있는 방이다. ‘수십 개의 똑같은 문이 잔혹 동화처럼 펼쳐져 있는 ‘숨이 막히는’ 고시원은 언니와 내가 웅크려 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 창 너머로 아파트와 노란 물탱크 밖에 보이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다(기도, 200). 언니가 고시원 건물 앞 손바닥만 한 공간마저 특별하고 소중한게 느끼는 것도 삭막한 서울 도심에서의 생활을 말해준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집이란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이자 하나의 우주이다. 다시

말해 집은 인간에게 ‘안정의 근거나 또는 그 환상을 주는 이미지들의 집적체’이다. 따라서 참된 의미에서 일체의 거주공간은 집이라는 관념의 본질을 지니기 마련이다.²⁰⁾ 하지만 『침이 고인다』의 등장인물들에게 보호와 내밀함과 같은 원초적 모성으로서의 집은 부재한다. 오직 초라하고 열악하기만 한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느끼며 대도시 공간에 이질감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친 서울의 모습은 어쩐지 암울하고 낯설기만 하다. “나의 하늘은 당신의 천장보다 낫다는 생각”(도도, 28)이 든다거나 “어쩐지 여기, 서울 같지 않”(도도, 28)다는 느낌은 “도시의 지하”(도도, 28)에서 일제히 ‘숨죽이며’ 살아가는 이들의 불면과 괴로, 고됨과 겹쳐진다. ‘수도(首都)가 이래도 되나?’(기도, 202)하는 의구심 역시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의 소외감에서 발원한다. 신림동 고시촌 꼭대기에서 내려다 본 “서울은 어딘가 더 가난해 보인다.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멀어 보이는 지도 모르겠다.”(기도, 202)는 느낌 또한 발붙일 곳 없는 이들의 내면 의식이 투영된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성탄특선」은 빈곤층의 공간 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루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공간을 찾아 헤매는 가난한 연인들은 바로 그들의 위태로운 실존을 한 순간 잊게 해줄 아늑한 공간을 구하지 못한 젊음의 처연함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²¹⁾ 성탄절 전야가 ‘사내’에게는 “일 년 중 가장 먹먹한 새벽을 만나는 날”(성탄, 90)로 여겨지는 것은 언제나 ‘뻘뻘’ 성탄절이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자기만의 방조차도 없는 사내가 모텔과 여관 창문을 올려다보며 ‘부러움’을 느끼는 것 또한 “그 많은 방 중 진짜 자기 방은 없다”(성탄, 85)는 박탈감에서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몇 년째 여동생과 방을 같이 쓰고 있는 사내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방이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였다. 애인과의 포옹마저 공간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경제적 능력의 외화인 ‘방’은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인간관계에 까지 작용한다. 사내는 서울살이 10여 동안 많은 방을 옮기며 살아왔다. 그동안 함께 했던 사내의 애인 역시 그 방들에 대해, “방에 따라 달라졌던 포옹과 약속에 대해서도, 그러나 어느 곳이든 따라다녔던 초조에 대해서도”(성탄, 87) 잘 알고 있다. 그녀가 떠난 것도 사실은 둘만의 공간이

20)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광광수 옮김, 동문선, 2003, 77쪽 이하 참조.

21) 권성우, 『낭만적 망명』, 소명출판, 2008, 132쪽 이하 참조.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내는 누구보다 잘 안다.

공간을 둘러싼 문제는 사내의 여동생에게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자’로 지칭되는 여동생에게도 애인과 간만에 성탄절 전야를 함께 보내려던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모든 게 ‘방’ 때문이다.”(성탄, 91) 이들 연인이 몇 년 째 함께 성탄절을 보내지 못한 이유들의 열거는 이들의 궁핍함을 배가시켜 보여준다(성탄, 91-94). 크리스마스 전야를 “그러니까…… 남들처럼”(성탄, 94) 보낼 조금의 여유도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직장을 갖게 된 지금 이젠 둘만의 온전한 크리스마스를, 그들이 갈구하는 육체적 관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방’ 때문에 불발로 끝난다. 데이트 비용보다 주차 공간을, 옷보다는 주택 청약을 고민하는 나이가 된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옷이나 돈이 아닌 ‘방’”(성탄, 95)임을 소설은 분명히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서울은 그 어떤 공간도 내주지 않는다. 세 시간을 모텔을 찾아 해마다 결국 구로공단 근처까지 내려온 이들이 들어간 남루한 여인숙은 이들의 경제적 근거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여인숙을 찾은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청년들을 통해 그것이 더욱 강조된다. 그들의 모습이 여자와 남자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사내의 여동생과 그 남자친구의 사회적 위치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하층민의 위치와 나란히 놓인다.

사내와 여동생이 바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없이 이사를 다녔지만 부엌이 따로 있는 방은 드물었던 까닭에 사내에게는 ‘텔몬트 주스 유리병에 보리차를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로망 중 하나였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떤 보통의 기준에 가깝게 해주고 또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성탄, 101)였다. 그가 고집하는 생활습관, 예컨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화장실 세정제만은 꼭 넣어두는 것이라던가, ‘배는 굶아도’ 인터넷은 좀 하고 살아한다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다(성탄, 102). ‘사람답게 살기 위한’, ‘어떤 보통의 기준’, ‘남들처럼’ 등과 같이 반복되는 상용구는 이들의 삶이 평균적 삶에도 못 미칠만큼 빈곤함을 시사한다. 내핍 생활에 익숙해 있는 이들 남매는 적금을 모아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결심하고 방을 구하러 다니다 만나절도 안 되어 풀이 죽고 만다. ‘천만 원이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줄 알았’다는

(성탄, 103) 사내의 말에서 이들이 겪어온 삶의 질곡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월세 부담이 컸지만 한 번쯤 ‘무리’라는 걸 모른 척하며 살아보고 싶었다.
 그것이 영화관이나 놀이 공원에서처럼 잠깐 동안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환상이라
 하더라도, 이제 분수껏 사는 일은 지겨워져 버렸다고 때를 쓰고 싶었는지도 몰랐
 다. (성탄, 103)

절약과 욕망의 절제만을 강요받아온 이들 남매가 구경이나 하려고 했던 원룸을
 덤석 계약 하고 이사를 감행하는 것은 ‘분수껏 사는 일’에 넌더리가 났기 때문일
 터이다. 이와 같이 “텅 빈. 도시의 북쪽. 도시의 변두리”(성탄, 90)로 대변되는,
 ‘방’을 둘러싼 이들 청춘들의 주거빈곤은 주거가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사회적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그밖에 등장인
 물들이 고유한 이름이 아닌 ‘사내’, ‘여자’, ‘남자’ 등으로 지칭되는 것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특정인물이 아닌 우리 사회의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음을
 내포한 작가의 서사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전통적 취약집단이 빈곤층의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
 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과거에 빈곤하지 않았던 계층마저 빈곤
 화되고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신빈곤 현상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빈부격차의 심화로 고통을 겪는 상대적 빈곤에 가깝다는 것이다. “요즘
 계급을 나누는 건 집이나 자동차 이런 게 아니라 피부하고 치야”(도도, 26)라는
 언니의 말처럼 신빈곤은 주거의 빈곤만이 아니라 건강의 불평등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치기공을 전공한 언니가 남자친구의 “누르스름하고 고르지 않고, 작고
 오래된 이들”을 들여다보며 “삼십 년간 밥 씹어온 그 사람 이를 보는 순간, 이상하
 게 서글픈 생각”(도도, 27)과 함께 “나와 가장 가까운 짐승을 안고 있는 기분”(도도,
 28)이 든 것도 생활고에 치어까지는 전혀 관리할 수 없었던 그에게서 동류의식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요새 고시도 잘사는 집 애들이 잘 붙어. 장거리 경주
 라 누가 뒤를 받쳐줘야 하거든.”(자오선, 120)이라는 말이나 “여자는 얼굴이 인성
 이고, 콘텐츠는 돈으로 만든다”는 선배의 말(자오선, 122)을 통해 작가 김애란은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자본의 위력 앞에 가난한 자는 이미 출발선상에서부터

다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흔히 배제된 청년층은 부모로부터 학력 자원을 물려받지 못한 집단이며, 그런 의미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는 부모세대의 불평등이 재생산된 결과로 본다.²²⁾ 「도도한 생활」에서 배움이 짧았던 엄마 역시 만두가게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나갔다. 탈수기가 놓인 ‘울음의 방’에서 엄마는 삶의 힘겨움을 ‘탈탈탈탈’ 울음으로 달랬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빚보증으로 가세마저 기운다. 이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만두집 장사가 잘 될 때 구입한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의 상징인 피아노를, 건반 하나 쳐보지도 못할 두 딸의 지하 셋방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성탄특선」에서도 성탄절 선물이 늘 이들 남매의 머리 위 ‘까만 봉다리’ 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가난에 쫓겨 바쁘게 살아왔을 그들 부모님의 삶이 그려진다. 「자오선을 지나갈 때」에서 형편이 어려워 사립대도, 재수도 안 된다는 주인공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같은 재수를 하더라도 경제력에 따라 당락이 달라지고, 그것이 곧 이 사회로의 진입과 직결됨을 학원친구 민식이를 통해 피력된다. 진학률이 아주 좋다는 어느 기숙학원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지만, “‘저기, 제가 100만 원 드릴 테니 저 좀 제발 때려주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맞고 싶어도 100만원이 없었다.”(자오선, 126)는 주인공의 말은 빈곤의 문제가 곧 교육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소설집 『침이 고인다』 전체를 관류하고 동시에 빈곤의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바로 ‘방’이라는 공간이다. ‘방’이야말로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고 배제된 이들의 삶의 현주소이다. 즉 고된 일상을 미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으로 견디어 내는 비좁고, 허름한 공간은 바로 그들의 실존과 유예된 희망 그 자체를 상징한다.²³⁾ 공간은 생활양식은 물론 존재방식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소득계층별 분화를 조장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도시빈곤층의 열악한 삶은 주거지로 가장 뚜렷하게 증명된다. 그런 점에서 등장인물들이 달동네·지하셋방·작고 허름한 원룸·고시원·독서실·자취방·친척집 등에 거주하는 점은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그것도 자매가 같이 쓰거나 심지어 성인인 남매가 한 방을 쓴다. 이와 같이 공간이 갖는

22) 이성균,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사회학회, 2009.12, 575쪽 참조.

23) 권성우, 앞의 책, 132쪽 이하 참조.

계급적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증거하는 방은 오늘날 신빈곤 시대의 빈곤과 절망을 상징하는 기표라 할 수 있다.

3. “나는 왜 이렇게 뻘한가……” — 희망의 빈곤

청년층의 취업은 생계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수행 및 관계형성을 위한 기본토대가 된다. 지그문트 바우만에 따르면 오늘날 실직의 본질을 더 정직하게 표현해주는 것은 ‘잉여’이다. 그것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나 있는 일방통행로’와 같다. 실업자는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었지만 다시 고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 계층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잉여’란 남아도는 것, 과잉, 불필요한 것이다. 잉여 존재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에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회에 태어났거나 또는 태어난 이후 경제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불필요해진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²⁴⁾ 오늘날 합리화되고 인원을 감축한 자본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산업은 노동력을 생산성 향상의 방해물로 본다. 경제성장과 고용의 성장은 실제 의도에 관한 한 서로 상충된다. 기술 진보는 노동력의 대체와 감축으로 측정된다.²⁵⁾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한 젊은이들이 자괴감을 갖거나 암울한 미래에 절망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악보를 지나 가장 낮은 음을 향해 내려가는 음표들”(성탄, 83)처럼 『침이 고인다』에 등장하는 청춘들의 미래는 낮은 곳을 향하고 있을 뿐이다. 「성탄특선」에서 “나는 왜 이렇게 뻘한가”(성탄 84)라는 사내의 자조 섞인 생각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멜로디 카드처럼 실패의 예감”(성탄, 84)에서 비롯한다. 제 기능을 못하는 멜로디 카드는 스스로를 폐기되어야 할 잉여 존재로 여기고 자책하는 청춘들을 상징한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특선 영화에서는 늘 장식된 전나무 밑에 근사한 박스에 들어 있는 선물과는 달리 “근데 우리 머리 위에 있던 선물은 왜 항상 까만 봉다리 속에 들어 있나, 나는 그게 참 이상했어.”(성탄, 114)라는 사내의 말은 경제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뻘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삶을 함축적으로 말해준다.

24) 지그문트 바우만,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이수영 옮김, 천지인, 2010, 125쪽 이하 참조.

25) 위의 책, 129쪽 이하 참조.

「자오선을 지나갈 때」에서는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재수시절 이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주인공의 현실을 ‘자오선을 지나갈 때’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학원이 노량진은 떠나기 위해 잠시 머무는 자들의 지명이며, 그곳에서의 생활과 관계 역시 다만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불편과 궁핍을 감내해야 했던 그 시간 이후에도 그곳의 시간이 지속된다는 것, 여전히 생은 막막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다는 데 있다. 사립대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학부 시절 내내 보습학원에 나가야만 했던 주인공은 졸업 후에도 여전히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고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대체 나아진다는 게 무엇일까”(자오선, 147)를 자문한다. 여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작지만 건실한 회사에 부지런히 원서를 넣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서른 번째 낙방을 하자 자신이 정말 괴물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체제에서 주인공이 경험하는 열패감과 좌절감은 스스로를 ‘루저’로 여기게 한다. 재수할 시절만 해도 63빌딩을 보며 ‘대한민국의 진보 앞에’ 자신들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진 어린이’라고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그녀는 알아버린 것이다(자오선, 143). 바꿔 말하면 이제는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 1999년을 시간이 아닌 ‘K-59’라는 번호 속에 살았음에도 그녀에게는 그 때가 뭔가 뚜렷한 한 시절로 느껴지는 것은 그때만큼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문제는 그녀가 “그때보다 — 아는 게 많아졌기 때문”(자오선, 147)에 그때만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녀가 가진 경쟁력이란 ‘손가락이 열 개 달린’ 정도의 평범한 조건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자오선, 148). 2005년 가을 그녀가 서울의 불빛을 보며 노량진의 이름을 떠올리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다리 량(梁) 자와 나루터 진(津) 자가 동시에 들어간 곳. 하지만 그곳이 정말 ‘지나가기만’ 하는 곳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7년이 지난 2005년 지금도 나는 왜 여전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걸까. (자오선, 148)

‘노량진’은 지구의 밤과 낮이 나뉘는 자오선과도 같이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상징한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던 그 시기만 지나면 더 나은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희망마저 사라지고, 그녀는 7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해서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는 나아진 것이 전혀 없는 삶을 또 다시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더욱 서울의 북쪽으로 달려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차고 깊은 가을밤을 절감한다. ‘엄친아’나 ‘엄친딸’이 될 수 없는 이들은 힘겹게 홀로서기를 시도하지만 이내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청춘마저 고여 있는 시간 속에 박제되고 마는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신림은 생각만큼 푸르지 않다. 2호선 색깔처럼 연한 초록빛을 하고 있을 것 같던 나무들은 모두 앙상하게 헐벗어 있다. (...) 웬지 시간이 고여 있는 느낌이다. 신림뿐만 아니라 서울 대부분의 거리가 그랬다는 기억이 난다. (기도, 194)

이들이 잠시 머무르는 ‘노량진’과 ‘신림동’ 혹은 서울 변두리의 지명들은 제도권 정규 사회로의 진입이 끊임없이 유예된, ‘계급’ 조차 갖지 못한 존재들인 이들의 시대적인 존재 위치를 말해준다.²⁶⁾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등장인물들이 현실에 대한 일말의 불만이나 적개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저 햇빛이 잘 안 드는 지하 단칸방에서 건포도를 씹으면서 캘리포니아 햇빛을 씹어 먹는 기분을 느낀다거나 피아노 치는 것을 금지했던 주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소극적인 저항(「도도한 생활」)을 보일 뿐이다. 고시원 앞의 조그만 인공 정원에 감사해 하는가 하면(「기도」), 13평 원룸에서의 생활에 만족해 하며 와인을 즐긴다거나(「침이 고인다」) 형편에 맞지 않는 원룸을 계약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을 잠시나마 누려보고 싶은 것(「성탄특선」)이 전부이다. 이 점은 오늘날과 같은 “전반적인 가속화와 활동과잉의 흐름 속에 우리는 분노하는 법도 잊어가고 있다”²⁷⁾는 한병철의 지적을 상기시킨다. 그에 따르면 분노란 현재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분노가 일어날 여지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즉 시간적 지평을 용납하지 않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현재 속에서 중단하고 잠시 멈춰서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분노가 싹틀 여지가 없다. 분노가 어떤 상황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면 김애란 소설 속 등장인물들에겐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26) 이광호, 앞의 책, 285쪽 참조.

27) 한병철, 앞의 책, 50쪽.

이들에게서 존재 자체의 문제인 불안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긍정성이 증가하면서 불안이나 슬픔처럼 부정성에 바탕을 둔 감정, 즉 부정적 감정도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²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게 이미 빈곤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빈곤 문화를 연구한 미국의 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에 따르면, 빈곤은 개인적인 층위에서는 복종, 열등의식, 체념, 숙명론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층위에서는 공적 삶으로의 통합이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계층분화와 개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빈곤층은 주변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할 뿐 아니라 빈곤을 내면화함으로써 다음 세대로 까지 빈곤 문화가 대물림된다는 것이다.²⁹⁾ 김애란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숙명론적 입장이나 체념적 태도 역시 어떤 측면에서는 빈곤을 내면화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에게서 비판적 상황에 대한 통찰이나 그것의 근본적인 지양은 이뤄지지 않는다. 바로 그 점에서 빈곤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신빈곤은 물질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황, 그리고 이에 더해 이 상황을 현재의 정치경제적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른바 사회적 배제가 신빈곤의 중요한 특징이면서 동시에 이를 낳고 온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³⁰⁾ 김애란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제도권 정규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이다. 이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일상의 삶을 묵묵히 영위할 뿐이다. 이들에게 현실이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희망이나 징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이들은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며 울고 싶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등장인물들이 극적인 비장미나 사회에 대한 적개심, 현실에 대한 분노, 타자와의 연대나 교감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지난 연대의 비판적인 사회소설과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 권성우의 지적은 온당하다. 다시 말해 이들은 현실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린 채 현실의 일상에 담담하게 적응해가는 조숙한 영혼들이라는 것이다.³¹⁾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성탄특선」의 사내가 반복하는 “나는 왜 이렇게

28) 위의 책, 50쪽 이하 참조.

29) Oscar Lewis, “The Culture of Poverty,” *Scientific American* 215(4), 1966, p. 19-25.

30) 조명래, 앞의 책, 82쪽 참조.

31) 권성우, 앞의 책, 134쪽 참조.

빠한가”이다. 이 말 속에는 희망의 상실과 함께 사회의 낙오자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 그것은 잘 관리된 치아(「도도한 생활」), 고단하고 일상적인 날들(「침이 고인다」), 학원가와 독서실의 차등화(「자오선을 지나갈 때」),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상징되는 공무원 시험과 고시 준비(「기도」), 자기만의 공간 문제(「성탄특선」) 등에서 보듯 우리 사회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라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흥미로운 것은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격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슬하를 떠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들은 저마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일을 한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마저 전혀 없는데, 이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하면 독서실이나 고시원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이어간다. 행복이나 삶의 즐거움이란 것이 이들에게는 소원하기만 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회로부터 밀려나 죽어라 공부하거나 일만 해야 하는 현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울고 싶은 것은 그런 까닭이다.

이 방에서, 이 거리에서, 이 시장과 저 공장에서, 이 골목과 저 복도에서, 그들에서, 창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가끔 아무도 모르게 도—도—하고 우는 것은 아닐까 하고. 사람들 저마다 모르게 까닭 없이 낼 수 있는 음 하나 정도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닐까 하고.(도도, 19)

‘도—’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운다’고 표현한 것은 낮은 ‘도’의 음을 울음으로 치환함으로써 이들 등장인물들이 맞닥뜨린 암울한 상황과 막막한 심정을 김애란은 특유의 서사적 기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도도한 생활」의 주인공이 하루 빨리 학교에 가고 싶었던 것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었다.”(도도, 32)는 주인공의 말에서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피로나 긴장마저 느껴볼 수 없는 고립된 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될 수 없었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오로지 ‘가전제품뿐’(도도, 32)이라는 현실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외 역시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결과임을 말해준다.

인간 실존의 적절성이 그 사회가 정의하는 남부럽잖은 생활수준에 따라 측정될

때 그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은 그 자체로 괴로움과 고통, 굴욕의 원인이 된다. 그것은 ‘정상적 삶’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에서 배제되어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스러움이나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빈곤은 또한 그 사회에서 ‘행복한 삶’으로 간주되는 기회들과 단절되고 ‘삶이 제공해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³²⁾ 그런 의미에서 김애란의 소설들은 비정규직 젊은 세대의 일상을 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의 부재, 희망의 상실을 매우 뚜렷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III. 글을 맺으며

일반적으로 신빈곤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근로빈곤의 형태를 띠는 점, 절대적 빈곤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로 고통 받는 상대적 빈곤이 증시된다는 점, 경제적 차원의 물질적 결핍만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 문화심리적 소외 등이 중첩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빈곤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 공간적 격리 및 사회적 배제와 결부된 심리적 고립을 보인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³³⁾ 이 논문에서는 신빈곤의 위와 같은 특성을 김애란의 소설집 『침이 고인다』에 나타난 근로·주거·희망의 빈곤을 중심으로 집중 조명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이 고인다』는 희망이 사라진 신자유주의시대 빈곤의 새로운 양상을 서사화하되 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경쟁에 내몰린 젊은이들의 외로움과 불안, 절망을 그린다. 무엇보다도 소설들의 각 제목들은 이를 역설적인 방식으로 매우 뚜렷하게 함축하고 있다. ‘도도한 생활’이 결코 도도할 수 없는 생활, 즉 “도—도—” 하고 울고만 싶은 현실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다면, ‘자오선을 지나갈 때’는 천체가 자오선을 변함없이 지나가듯 주인공 역시 변하지 않는 궤도를 계속해서 돌고 있음을 암시한다. ‘약속의 땅’처럼 미래를 기약했던 노량진을 지나면서 주인공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혀 변한 것도, 나아진 것도 없는 현실과 앞으로

32)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73쪽 참조.

33) 박보영, 앞의 책, 9-12쪽; 장세훈, 앞의 책, 44쪽 참조.

도 크게 다르지 않을 미래를 예견한다. ‘성탄특선’ 역시 즐거운 성탄절과는 대조적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삶과 어둠을 조명한다. 그야말로 ‘특선’이 아닌 ‘빡한’ 크리스마스처럼 앞으로의 삶도 빡할 것이라는 먹먹한 미래를 내비춘다. ‘기도’ 역시 척박한 상황 속에 간절히 염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노동을 해도 지금보다 나아질 전망도, 미래의 그 어떤 희망이나 대안도 없는 이들에게는 없다. 오직 길게 드리워져 있는 것은 빈곤일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희가 70년대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통해 제기한 시대적 문제의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겠다. 김명인의 날카로운 아래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불평등의 심화 속도는 언제나 성장의 속도를 앞지른다. 역대 연봉이 많아질수록 저임금 노동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사회는 언제나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든 이주 노동자든 88만원 세대든 그 얼굴은 바뀐다. 하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처형대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똑같다. 잔인하게도 사람들은 이 명백한 사실을 똑바로 보려 하지 않는다. 가난과 비참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가난과 비참의 당사자들조차 그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³⁴⁾

물론 김애란의 소설들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만큼 급진적이거나 긴박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새로운 빈곤의 형상을 통해 도시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질서와 체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부박하고 암울한 이 시대에 고통과 분노에 찬 메시지 대신 불합리한 사회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빈곤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되물게 한다.

오늘날 빈곤은 물질적·경제적 결핍이라는 단일 차원의 문제에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문화적·심리적 소외가 결합된 다차원적인 문제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빈곤은 “수로는 다수지만 권력으로는 마이너리티인 새로운 대중, 비정규직 노동자”³⁵⁾

34) 김명인, 「부끄러움의 서사, 『난쏘공』」, 권성우 엮음, 『침묵과 사랑. 『난쏘공』 30주년 기념문집』, 이성과힘, 2008, 44쪽 이하 참조.

35) 박태주·오건호, 앞의 책, 219쪽.

라는 시대적 화두와 맞물려있다. 이 같은 시대적 문제를 『침이 고인다』는 불안한 시대의 불안한 존재들을 통해 보여준다. 그런 맥락에서 소설집 『침이 고인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니까’와 ‘그렇지만’ 사이의 깊은 협곡”(침, 47)은 엄중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 젊은이들은 치열하게 청춘을 바친다. ‘그렇지만’ 정작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경제적 궁핍,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사회로부터의 배제일 뿐이다. 『침이 고인다』에서 ‘운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다시 말해 『침이 고인다』는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채 “오늘 하루, 열심히 열룩말처럼”(침, 50) 달려야만 하는 가련한 청춘들의 막막한 현실과 난공불락의 사회체제를 고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애란의 소설집 『침이 고인다』는 2000년대 우리사회의 청년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문제작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신빈곤,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 근로빈곤, 주거빈곤, 희망의 빈곤

❖ 참고 문헌

- 1차 문헌

김애란, 『침이 고인다』, 문학과지성사, 2007.

- 2차 문헌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권성우, 『낭만적 망명』, 소명출판, 2008.

김명인, 「부끄러움의 서사, 『난쏘공』」, 권성우 엮음, 『침묵과 사랑. 『난쏘공』 30주년 기념문집』, 이성과힘, 2008, 38-53.

노병일, 『빈곤론』, 양서원, 2013.

박보영, 「신빈곤을 통해 본 양극화시대의 빈곤문제」, 『노동연구』 제19집, 2010.4, 5-45.

- 박태주, 오건호, 「비정규직, 현대판 신분제인가」, 『창작과비평』 통권 140호, 2008.6, 193-219.
- 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 양윤의, 「서울, 정념의 지도—200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45-78.
- 윤진호, 「신자유주의 시대의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황해문화』 제67집, 새얼문화재단, 2010.6, 240-258.
- 이광호, 「나만의 방, 그 우주 지리학」, 김애란, 『침이 고인다』, 문학과지성사, 2007, 283-306.
- 이성균,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사회학회, 2009.12, 569-581.
- 이정우, 「빈곤과 사회적 재배의 정치경제학」,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009.9, 18-38.
- 이평진, 「현대소설에 나타난 ‘일상’ 재현의 의미와 ‘주체’ 서사 연구—정이현,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375-397.
- 장세훈, 「한국 사회에 ‘신빈곤’은 존재하는가? 도시빈곤의 지속과 변모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한국 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2006.
-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 민음사, 2005.
- 조명래,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과 신빈곤」,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한국 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2006, 49-87.
- 지그문트 바우만,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이수영 옮김, 천지인, 2010.
-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 Lewis, Oscar, “The Culture of Poverty,” *Scientific American* 215(4), 1966, 19-25.
- Mäder, Ueli, Armut und soziale Ausgrenzung: zur Dynamik von Integration und Ausschluss, in Bernard Wandeler, Peter Stadel(Hg.), *Armut und soziale Ausgrenzung*, Werkstattheft, Hochschule Luzern - Soziale Arbeit, 2010, S. 10-18.
- 동아일보, 2012.7.18. <http://news.donga.com/3/all/20120718/47843613/1>

❖ ABSTRACT

Literary Narratives on ‘New Poverty’

- Kim Ae-ran’s Collection of Novels, *My Mouth Waters*

Joung, Yoon-Hee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o-liberalist market order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the 1990’s, urban poverty has shown aspects radical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While old poverty was based on material deficiency due to impossibility of economic engagement, new poverty has an inseparable relation with the proliferation of the ‘working poor’ who cannot escape from situations of poverty though engaging in economic activities. Also, new poverty is close to relative poverty in which one feels deprivation due to the deepening of the rich-poor gap, and a function of social inequality consisting of economic deprivation, social exclusion, cultural alienation etc.

Today, the phenomenon of ‘jobless growth’ gets more prominent though macroeconomic indicators including economic growth rates and investments show recovery trend. In particular, the phenomena of employment crises are serious due to high unemployment rates in young generations and increase of long-term jobless persons.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lies in the fact that the young unemployed cannot help leading a life as an alienated class in this society losing stable jobs and hopeful future.

Kim Ae-ran’s collection of novels, *My Mouth Waters*(2007) very intensely shows those problems with our society. This paper tries to discuss her *My Mouth Waters* as a collection of literary narratives on ‘new poverty.’ The subjects of analysis in this paper include *Arrogant Life*, *My Mouth Waters*, *Passing the Meridian*, *Christmas Specials*, and *Prayer* out of the 8 novels contained in the collection.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is carried out at the three levels, poverty of working, poverty of housing, and poverty of hope, main characteristics of new poverty. In terms of this,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fact that problems of poverty, alienated labor, and social exclusion

due to them, which are depicted in Kim Ae-ran's novels, are naturally associated with the aspects of new poverty in our society.

Key Words

new poverty, social exclusion, the young unemployed, working poor, housing poor, loss of hope

저자: 정윤희

주소: 서울 성북구 월곡동 23-1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전화: 02)940-4694

E-mail: jounghy@dongduk.ac.kr

논문접수일: 2013. 08. 15.

심사완료일: 2013. 09. 05.

게재확정일: 2013. 09. 10.